

2016. 6. 30. (목)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황성사랑
황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4분기 운영위원회		
일 시	2016. 6. 30.(목) 11:00-12:00		
장 소	복지관 2층 강당		
참석현황	참석위원	8명	이석원, 장유진, 백영선, 천성덕, 권용준, 정원영, 김원정, 김선심
	불참위원	1명	오상숙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운영위원 위촉 - 2분기 추진 업무보고 - 3분기 추진 예정사업 - 직원인사 - 현안업무 		
논의 및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물리치료사업 2인 체제에 대한 대안모색으로 2인의 경우 지향하기 바라며 3인의 경우처럼 신규 치료기법도입과 이용자 확대방안 모색 등 직원해고회피의 노력을 기하는 방안 재고 		
회의내용	<p>사회자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운영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 2분기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p>이석원 위원장 :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복지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장애인복지관장이신 백영선 관장님 취임 이래 많이 여러애쓰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큰 사안은 없고 몇 가지 토의인데 잘 참여해주시고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우신 날씨에 건강 잘챙기시고 고맙습니다.</p> <p>사회자 : 다음은 백영선 관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p> <p>백영선 위원 :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유진 과장님도 처음참석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노인전문요양원장님께서 신규위촉되셔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업보고 마치고 복지관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사회자 : 다음은 장유진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기에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p> <p>장유진 위원 :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들 아시는분들 같습니다. 백영선 관장님 취임하고나서 장애인 복지관이 많이 활성화 되어진 것 같고요. 관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가족같이 이용할 수 있게 변화되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성원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분의 운영위원분들 중 8분이 참석하셨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성원선언이 있겠습니다.</p>		

이석원 위원장 : 방금 사회자가 성원보고 하였습니다. 성원되었기에 2/4분기 운영위원회가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 : 금일 회의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신규 운영위원 위촉, 2분기 추진사업보고 및 당면업무보고, 현안업무 협의입니다. 그럼 우선 신규 운영위원 위촉이 있겠습니다. 황성균노인전문요양원 김선심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전달) 오늘 위촉되신 김선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김선심 위원 :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에게서도 새로 뵙는분도 계시고 저는 복지관 보건의료분야에서 선덕의료재단 이사장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 관련 필요한 부분있으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김선심 위원님은 전 신형철 위원님의 임기 잔여기간동안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해주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다음은 전차회의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회의록보고)

이석원 위원장 : 방금 전차회의록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의 없으시죠?

전원 : 네

사회자 : 2분기 추진사업보고, 당면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업무보고 및 당면업무보고)

이석원 위원장 : 방금전까지 사업추진보고와 당면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질문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장 : 이동복지관은 2개월에 한번씩 운영되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1개월에 1번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영선 위원 : 인원수가 꽤 많이 옵니다. 장애인뿐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원 위원장 : 이동복지관하면 여기서 직원이 많아나가요?

백영선 위원 : 직원들은 몇 명만 나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는 면에서 선정하는지 행복봉사공동체에서 의뢰되나요?

백영선 위원 :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동 사무국장 : 저의가 자체적으로 하기도하지만 저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협조하여 공동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자재비가 들어가는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30만원까지 자체예산이 수립되어있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행복봉사공동체 연계하여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백영선 위원 : 행복봉사공동체와는 조금 큰건의 경우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동 사무국장 : 7월에 지원하는 연계가구의 경우 복지관과 배관 등의 경우는 행복봉사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예정입니다.

권용준 위원 : 대상자추천해도 되는지? 옥동리에 사시는 원용여님이 계신데 가정형편도 어렵고 배우자도 치매에 청각장애이고한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박진동 사무국장 : 지금 복지관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사무국장께 추천요청 부탁드립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동 사무국장 : 네

이석원 위원장 : 외식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건가요? 식당에서 먼저 후원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나요?

박진동 사무국장 : 처음은 저희가 개발 연계하였었고 강림도 연계가 되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횡성읍 함발식당에서 연2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여 개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장유진 위원 :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군에서 협조하고 있으니 장애인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관에서도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진동 사무국장 : 이동세탁차량과는 현재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복지관에서도 월1회 재가장애인분들 이불빨래 등을 회수하여 사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 지원 가능하니 연락달라하였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그럼 2분기 사업보고, 3분기 추진업무 이상없으신가요? 넘어갈까요?

전원 : 네

박진동 사무국장 :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운영위원님들께 안전에 대하여 결정해주시사하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안전으로 부의 드렸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현안이 되는건 열전기치료사랑 물리치료사인데 일단 열전기나눠보겠습니다. 열전기를 할건지 말건지 위법사항이 없는지인데 관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주세요

김선심 위원 : 축탁의는 복지관으로 와서 진단을 해주는지? 기간은 어느정도에 한번씩해주는지? 대상은 전체장애인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와서봐주나? 어느정도 봐주나? 전체장애인들을 보나?

박진동 사무국장 : 와서 진료를 해주시고 월1회 초진에 대한 지도를 주고계십니다. 전체장애인은 아니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초진 월마다 변경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선심 위원 : 진료 지시서를 받으면 얼마만큼의 기간에 효력이 있는지?

박진동 사무국장 : 한달로 보고있고 보건소 담당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선심 위원 : 재활의학과진료라고 되어있는데 정형외과도 되지 않나요?

박진동 사무국장 :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정형외과의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도 간혹있고 기왕이면 포괄적인 재활의학전문의가 좋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김선심 위원 : 월1회 오시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입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260만원 정도이나 저희는 불가능한 부분이라 월1회 진료 두분이 오시는데 월 3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선심 위원 : 처음시작은 언제였지요?

박진동 사무국장 : 6월 11일날 첫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유진 위원 : 대상자는 복지관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네

김선심 위원 : 그럼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박진동 사무국장 :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16명 정도 되시고요. 추가로 더 받고자 하는 분이 3~4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심 위원 : 그리고 1안에서 단점 두 번째 일일 업무량의 통제가 모호하다는 무슨뜻인지요?

박진동 사무국장 : 치료사 1명이 하루 7~8타임, 기본적 풀셉션 30세션으로 보고있습니다. 방문물리치료가 새로운 치료기법을 도입하여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업무를 주어진게 된다면 정규직에 대한 유지가되며 실제로 대상자가 개발되어지지 않고 활성화안되도 왜 실적이 저조한지 말올해도 본인의 역량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영선 위원 : 제가 부임했을 당시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본 결과 유지의 필요성이 보이지않아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 9개읍면 보건소 등에서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유진 위원 : 통계자료를 보니 방문물리치료 실제 서비스제공이 하루 1.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9개읍면 1명의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배정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방문물리치료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석원 위원장 : 관장님께서서는 물리치료사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를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건지?

백영선 위원 : 그렇긴 하진만 처음 여기 개관당시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가보면 좋은 장비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장애인분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고민중이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장유진 위원 : 물리치료 주기가 주1회입니까 2회입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재활운동치료는 주2회 열전기치료의 경우 공식적으로 일주일2회를 배정하고있으나 어르신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날에도 부탁하면 마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분들의 동의하에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장유진 위원 :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량은 1인 업무량 밖에 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20명이 매주2회 받으셔도 어차피 전체 합쳐도 40명, 한명만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김선심 위원 : 복지관 물리치료기구가 여러 가지 있으니 다 활용할 수 있음 일을 다 시킬 수 있는거죠.

권용준 위원 : 그럼 왜 물리치료사를 2명을 두었습니까? 운동치료사를 두어야죠.

박진동 사무국장 : 물리치료도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채용했던건 방문물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고민하는 슬링이라던지 시행능력의 검증은 없었지요. 그러나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천성덕 위원 : 처음부터 물리치료사가 2명이 채용되었던 겁니까?

백영선 위원 : 물리치료사가 2명이었고 현재 방문물리치료를 하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권용준 위원 : 그럼 빨리 인원정리를 하고 전문 운동치료사를 채용해야겠네요.

이석원 위원장 : 지금 열전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겁니까?

김선심 위원 : 진료지시서가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전문의가 지시서가 있으면 가능한데 복지관에는 얼마동안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하지 않나요?

박진동 사무국장 : 저희에 대한 기준은 1달입니다.

김선심 위원 : 열전기치료도 한달에 한번씩 지시서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진동 사무국장 : 제2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초진을 진행하셨고 월별지시서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지만 열전기는 정기적인 치료와 변화 추이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지시서를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유진 위원 : 그럼 대상자와 치료타임 조정하여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박진동 사무국장 : 전기치료대상자 조정과 정기적인 치료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여쭙어 보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첫 번째는 정상화위하여 확대 두 번째는 권고사직, 세 번째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를 제시할 때 추위는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거 같습니다. 토론은 충분하니 잘 좀 처리부탁드립니다.

장유진 위원 : 업무를하다 업무가 없어지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복지관 선에 방문물리치료 하다없어진거잖아요 없어졌을 때 바로 처리했어야하는데 시간이 지난거니까..

박진동 사무국장 : 제가 관련노동법 판례 등을 알아보았는데 사업폐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 폐지의 부분이 단일사업인지 사업장 전체 폐업인지 사업 잔류라면 근로자의 전향할 방법 강구해야 한다가 노동법의 주이며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석원 위원장 : 최대한의 고용을 노력을 보여야한다는 근거가 있어야한다.

박진동 사무국장 : 그래서 제시한게 3안이었습니다.

김선심 위원 : 그러면 기기들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3안이 제일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석원 위원장 : 그렇죠 그게 최종적인 단계가 되겠죠. 사용자가 단도직입적으로 2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있으나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본인들이 알고 있지요?

천성덕 위원 : 입사할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백영선 위원 : 지금 이 상황은 방문물리치료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박진동 사무국장 : 입사시 근로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백영선 위원 :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있고 인사도에 따라서 연장계약이 되던 환직이 되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장 : 3안이 가장 완만하게 갈수 있는 길이되겠죠. 여기서 결론내릴 사항은 아니고 좋은 의견 감안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랑 다 이루어졌는데 장애 인복지관에 대한 발전을 위한 좋은 고민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면 회의 종료할 까요? 적극적으로 회의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백영선관장님 사무국장님 고맙단 말씀드리고 출석률도 좋고 위원님들 더운 여름철 건강들 잘 챙기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분기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함.

2016. 6. 30.

- 위원장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 : 이석원
- 위 원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 장유진
- 위 원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장) : 백영선
- 위 원 (횡성군 장애인협회장) : 천성덕
- 위 원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횡성군지부장) : 권용준
- 위 원 ((사)강원도농아인협회횡성군지부장) : 정원영
- 위 원 (이용자 대표) : 김원정
- 위 원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장) : 김선심
선림의료재단성병원 이사장.
- 위 원 (횡성장기요양센터장) : 오상숙
- 간 사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박진동

이석원 서명 (인)

장유진 서명 (인)

백영선 서명 (인)

천성덕 서명 (인)

권용준 서명 (인)

정원영 서명 (인)

김원정 서명 (인)

김선심 서명 (인)

오상숙 서명 (인)

박진동 서명 (인)